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정서적 불안과의 관계

Mother's Verbal Control Modes and Children's Emotional Anxiety

신라대학교 가족·아동학과
강사 오미경
동의대학교 아동·가정환경학과
교수 정현희

Dept. of Family and Child Development, Silla Univ.

Lecturer : Oh Mi-Kyung

Dept. of Child & Family Environment, Dong Eui Univ.

Prof. : Jeong Hyeon-H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verbal control modes and children's emotional anxie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57 boys and 144 girls attending elementary schools in Busan. Lee Kyung-Hee's(1993) questionnaire on mother's verbal control modes, and Kang's(1986) questionnaire on emotional anxiety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ys and girls about mother's imperative control mode. and children's emotional anxiety. Boys got the higher scores than the girls in mother's imperative control modes. But Girls got the higher score than the boys in children's emotional anxiety.
- 2) Only for boy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mother's imperative control mode and children's emotional anxiety.
- 3) Sex variable and mother's imperative control mode variables were the predictor influencing on children's emotional anxiety. That is, girls shown higher emotional anxiety than boys. And children shown higher imperative control get higher emotional anxiety scor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불안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되는 것으로 막연하며 목적이 없는 것으로 불확실한 느낌과 무력감을 포함하고 있으며 철저히 개인을 위협하는 것이다(May, 1950).

Lazarus와 Averill(1972)은 불안은 상징적이고 예상되는 불확실한 요소를 수반하는 위협의 감정에 기초를 두고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의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춘 감정이며, 개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적당한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공포나 두려움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불안은 본질적으로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사건에 대한 약한 공포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간적, 공간적으로 먼 위협에 대한 공포라 할 수 있는데, 공포가 그 발생이 강렬하고 지속성이 짧고 직접적이며 생리적 신체적인 것과 결합된 정서라고 한다면, 불안은 강렬하지 않고 지속적인 기분이나 감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불안은 공포의 일종으로 무서워할 대상이 막연한 공포를 불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은 건전한 인격으로 성장발달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한 예로 Adler(1956)는 생의 모든 면에서의 불안정감과 부족감에서 생기는 불안을 열등감이라는 좀더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고, 이와같은 불안정감, 열등감은 인간의 위대한 추진력이 되기도 하고, 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본능적인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노력의 결과가 되기도 하지만, 불안한 사람은 익숙해진 상황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곧 두려움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불안은 그의 생활을 상당한 수준까지 고통스럽게 만들 뿐아니라 타인과의 사회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게 하므로 평화로운 생활과 효과적인 인생목표의 달성을 위한 기초작업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또한 Dunne(1977)은 정서적 불안정아는 정서적 불안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없으며, 공격이나 퇴행의 행동을 보이고 심리적인 강박으로 자기에게 기대된 것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건전하고 성숙한 인격형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아동의 정서적 불안을 연구한 학자들은 어린 시절 일차 양육자와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가 아동의 정서적 불안의 주원인이라고 가정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불안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서선주, 1988)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양육행동 중에서 구체적인 어떤 측면의 행동이 아동의 불안과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아동을 사회화시키는 과정은 언어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김선미, 1994), 어머니 양육행동의 구체적인 한 측면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정서적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양육행동의 어떤 요인이 불안과 관련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정서적 불안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불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변인을 탐색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문제

위에서 진술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및 아동의 정서적 불안은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정서적 불안은 상관성이 있는가?
- 셋째, 아동의 정서적 불안에 미치는 아동의 성별 및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느 정도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을 다룬 학자로는 Bernstein

과 Gordon, 그리고 Gumperz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Bernstein의 언어통제유형을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국한하여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언급하고자 한다.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란 Bernstein(1971)의 언어 사회학 이론에 근거한 개념으로 그는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하여 명령적 통제, 지위지향적 통제, 인성지향적 통제로 구분하였다. 명령적 통제는 아동에게 부여된 재량권이 거의 없으며, 주로 제한된 어법에 의해 표현되고 신체적 벌이나 위협, 언어적 처벌 등에 근거한 통제유형이다. 제한된 어법은 문장의 형태가 짧고 단순하며 문법적으로 불완전하고 언급하려는 주제를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종속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나"라는 용어보다 "우리" 또는 "그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관념과 밀접하게 관련된 동일시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대화시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지위지향적 통제는 아동의 행동을 통제할 때, 그 사회의 보편적이거나 특수한 지위에 내재한 규범에 근거한 통제 양식이다. 이는 부모나 자녀의 심리적 특성이 아니라 가족 또는 사회규범이나 아동의 지위규범이 행동통제의 준거가 되어 아동을 자신과 유사한 특성이나 보편적 지위를 가진 다른 아동과 관련짓는 언어표현 양식이다. 인성지향적 통제는 개인의 형식적 지위보다는 개인의 동기, 의도, 성향등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부모는 아동에게 행동의 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아동이 지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새로운 설명을 해준다. 이와 같은 인성적 통제에서는 규칙은 아동이 성취하는 것이며, 부모는 자녀가 그 규칙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새로운 선택에 필요한 설명을 제공해 줄 뿐이다. 그러므로 아동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가 인지하고 행동에 대해 판단하고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며 자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은 아동이 어머니와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Bernstein

(1977)은 언어는 개인과 개인의 행동을 중재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며 언어의 형태가 개인의 행동을 방향지워 주고 그 행동의 방향은 다시 그 언어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한 예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은 아동의 역할조망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Hollos & Cowan, 1973), 가족내의 상호작용이 개인 지향적일수록 아동의 언어발달이나 역할조망능력의 발달이 촉진되었다(Thorlindsson, 1981). 반면에, 권위에 의한 강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가족체계에서는 자아중심적인 사회적 성격이 초래되기 쉬웠다. 이는 권위에 대한 강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가족체계는 제한된 언어모형을 빈번히 사용하게 되고 제한된 언어모형의 사용은 논리적 측면에서 낮은 수준의 개념화와 추상화로 이끌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개별화를 억제하므로 아동의 발달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명령적이고 지위지향적인 언어통제유형은 어머니가 그 행동을 잘못이라고 단정을 내리므로 아동은 자신의 행동의 영향력에 대해 사고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유형은 아동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므로 자신의 행동으로 초래되는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되어 상황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관련하여 연구된 변인들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경희, 1994; 도혜숙, 1997), 부적응적 행동(김혜련, 1994; 김이은, 1996), 공격성(박향숙, 1989), 자기표출(이선영, 1993), 자아존중감(이순재, 1994; 이승희, 1996)등은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부모가 명령적 통제를 할수록 부적응적 행동을 보이며 인성지향적인 통제를 할수록 긍정적인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2. 아동의 정서적 불안

불안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각 학자들의 견해를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불안을 이론적 측면에서 체계를 두고 강조한 학자는 S. Freud이다. 그는 출생행위가 바로 불안감의 원천이며 원형이라 하고, 불안은 상상되는 상해를 느낄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 즉시 도피반사와 연결되는 현실불안과 원욕, 자아 및 초자아 사이의 무의식적 갈등의 결과 야기되는 신경증적 불안으로 구분하고 불안을 원욕의 충동이나 외적 위협, 초자아의 억압에 의한 자아의 무능력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은 자아에게 이에 대한 적응행동을 요구하는 경고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한편, 인간을 사회집단에 소속하고자하는 강한 욕망을 가진 존재로 보는 Adler는 불안한 사람은 친밀한 상황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곧 두려워하며, 이러한 불안은 그의 생활을 상당히 고통스럽게 만들뿐 아니라 타인과의 대인관계도 원만치 못하며 평화로운 생활과 효과적인 인생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Sullivan(1953)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불안한 존재로 보지는 않았는데, 그는 불안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유아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거부감이 이입되어 유아가 위협을 느낄 때 불안이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불안의 개념을 실험심리학의 주요영역으로 끌어들이 사람은 Mowrer(1950)인데, 그는 불안을 고전적 조건형성에 의해 학습될 수 있는 내적 반응이라고 하였다. 그는 불안을 유기체가 위협신호로 지각하고 그 위협을 예상함으로써 생기는 조건화된 반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인지론적 입장에서는 불안의 원인을 개인의 통제력과 무기력에 두고 있는데 이들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불안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자신의 통제력을 넘어서는 상황에 직면할 때나 그 상황에서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낄 때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우나 그러한 그의 기본적 천성이 표현불가능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불안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즉 현실적 자아개념과 이상적 자아개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불안이 형성된다고 한다.

최근에, Spielberg(1972)는 불안을 일련의 정서적 과정으로 이해하고 상태-특성불안 이론을 주장한다. 즉 그는 자주 경험한 긴장이 개인의 상태불안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누적되는 상태불안은 성격형성의 한 부분인 특성불안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 불안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험불안이 높은 사람이 시험불안이 낮은 사람보다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며(Sarason, 1972), 과제의 곤란도와 불안, 학업성취와 불안과의 관계에서(Spence & Farber, 1953), 높은 수준의 불안을 가진 사람이 단순한 과제를 잘 수행하고, 낮은 수준의 불안을 가진 사람이 복잡한 과제를 잘 수행한다고 하였다.

3.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정서적 불안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지지적일 때(예: 부모의 반응적 태도와 사회적 지지) 아동의 능력은 발달하고 적응적인 행동을 보이는 반면에 그 환경이 바람직하지 못할 때(예: 어머니의 우울, 부부간의 불화, 그리고 사회경제적 불이익)아동이 역기능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커진다(Brown & Harris, 1978; Dumas & Gibson, 1990); Dumas & Wahler, 1983; Sroufe & Rutter, 1984). 이와 유사하게, 양육자와 지지적 관계를 갖는 어린이는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적절한 적응을 하며 거기서 그들은 어른과 동료에 대해서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반면에, 양육자와 스트레스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어린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우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우며 친사회적 행동에 참여하기 어렵고 정서적 애정을 느끼기 어렵다(Belsky, Fish, & Isabella, 1991; LaFreniere & Sroufe, 1985; Parke & Ladd, 1992; Patterson, 1992). 뿐만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파트너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실패는 그들로 하여금 모든 다른 상황에서 기능적인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상호작용의 경험을 박탈하는 것이다(Dumas and LaFreniere; 1993).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동의 건전한 발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아동의 불안도 궁극적으로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아동발달에 지지적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혹은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한예로, Dumas and LaFreniere(1993)는 만 4세 유아를 4그룹(능력있는 유아집단, 보통 유아집단, 공격적 유아집단, 불안한 유아집단)으로 나누어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또는 유아와 낯선 어머니와의 문제해결상황을 관찰한 후에 그들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으로 자기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는 4그룹 모두 상호작용적이었으나, 낯선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는 단지 능력있는 유아와 보통 유아만이 상호작용적이었다. 즉, 능력있는 유아와 보통유아는 자기 어머니 및 낯선 어머니 모두에게 아주 긍정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공격적인 유아와 불안한 유아는 낯선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양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공격적인 유아의 어머니와 불안한 유아의 어머니는 단지 낯선 아이에게만 긍정적이고 상호작용적이었으며 자신의 아이에게는 분별없고(공격적 유아의 경우) 혐오적이며 부정적 상호작용(불안한 유아의 경우)패턴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일차적인 양육자는 아동에 있어 지지적 역할을 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주는 주요 근원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여 아동의 정서적 불안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Baldwin(1974)는 부모의 양육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완벽주의가 유아의 불안을 조성하고 항상 높은 목표를 지향하게 하도록 압력을 주며, 이는 성인이 되어 훌륭한 업적을 이룬 후라도 자기 스스로 불안을 가지는 성격을 형성시킨다고 하였으며, 불안의 원인을 생물학적이고 본질적인 요인과 유아기의 경험에 두고 설명한 Spielberger(1977)도 아동의 불안은 벌을 중심으로 한 부모와 유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로, 윤상래(1965)는 불안과 육아법에 관

한 상관연구에서 어머니가 그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과하는 욕구와 제재의 빈도에 따라 그의 자녀는 더 불안하게 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리, 욕구와 제재를 조기에 부과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더 불안하게 된다고 하였다. 김경희(1965)도 한국아동의 불안현상에 관한 연구에서, 불안은 어머니의 지나친 보호와 그에 따르는 아동의 의존성과 뚜렷이 상관이 있으며, 부모가 타이르기보다는 때릴 경우, 그리고 공부를 강요하는 부모의 양육방법이 불안형성의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김정택(1978)은 불안이 높은 청소년의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가족관계와 타인과의 사회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인 미성숙으로 인하여 사회적 활동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며 타인과의 사회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보아,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불안은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며(서선주, 1988), 또한 어머니가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은 언어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때문에(김선미, 1994), 어머니 양육행동의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 유형과 아동의 불안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불안을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모양육태도의 변인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간과되어왔던 어머니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정서적 불안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혀 아동발달의 지도자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아동의 성별에 따라 정서적 불안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각각 아동의 정서적 불안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부산시내의

중류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초등학교를 임의표집 하였다.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남녀 아동 301(남 : 157명, 여 : 144명)이었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아버지의 연령은 40세 이하가 35.9%, 40-45세가 60.1%이며, 어머니의 연령은 40세 이하가 58.8%, 40-50세가 39.5%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중졸이하가 9.9%, 고졸 43.8%, 전문대졸이상이 57.13%이고,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이하 15.9%, 고졸 44.5%, 전문대졸이상이 42.2%로, 부모 모두 고졸 이상이 다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단순, 노무직 등이 7.6%, 자영 및 일반사무가 74.8%, 전문직이 16.6%였으며, 가정의 수입은 150만원 이상이 78.7%였다. 이와 같은 연구대상의 특성으로 보아 본 연구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대략 중류로 볼 수 있다.

2. 측정도구

측정방법은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아동의 정서적 불안 척도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척도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Gumperz(1973)가 제작한 8개 개방형 질문과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문항을 구성한 이경희(1993)의 측정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28개 각 문항에 대해 명령적 통제(예: 그만해, 책하나 간수못해서 아침에 이 난리니, TV를 꺼 버린다. 또 밤에 숙제 한다고 이러면 혼날 줄 알아 등), 지위적 통제(예: 그릇을 다룰 땐 조심해야지, 친구끼리는 사이좋게 지내야지,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장난이니, 동생이 형한테 대들면 돼? 등), 인성적 통제(예: 책을 아무 곳에나 두니까 이렇게 애를 먹지? 잘 생각해 봐, 이렇게 늦게 다니면 엄마가 걱정하잖아. 널 몹시 보고 싶어 하실텐데 등)의 3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경희(1993)의 언어통제유형 척도는 문항분석, 요인분석과정을 거쳐 구성된 측정도구로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명령적 통제 .95, 지위적 통제 .91, 인성적 통제 .93이었으며, 반분신뢰도는 명령적 통제가 .95, 지위적 통제가 .91, 인성적 통제 .94로서 척도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아동의 정서적 불안 척도

아동의 정서적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강계순(1986)이 사용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주영숙, 김정희가 만든 불안검사로 8개의 불안영역, 120개의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각각 1개씩 심리적 증상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짤막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험자는 각 문항을 읽고 그 문장에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자신의 심리적 상황의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나 8개의 불안영역중 4가지의 불안영역만을 택하여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 검사는 특정한 사람, 장소, 대상 혹은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불합리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고전적 불안과 사회·대인관계에 대한 불안, 학습·시험·능력에 대한 불안, 무엇이나 재앙이 닥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기타 정서적 불안을 포함한다.

각 영역이 15개 문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60문항으로 불안점수를 측정한다. 피험자는 각 문항을 읽고 자기의 느낌의 정도에 따라 1점부터 4점까지 비중을 두어 표하도록 하였다. 채점방법은 긍정적인 문항일 경우 "항상 그렇다"쪽에 4점, "자주 그렇다"에 3점, "가끔 그렇다"에 2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고 부정적인 문항에는 반대로 채점하도록 하였다. 불안척도의 내적 신뢰도계수인 Cronbach's α 는 .72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조사는 1997년 4월 1주부터 4월 3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조사자들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에게 협조를 부탁하였다.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정서적 불안은 담임선생님의 협조하에 아동이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고, 수집된 320부의 자료 중 부실기재를 제외한 301부의 자료처리는 연구문제에 따라 F-test, Pearson's 상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앞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따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정서적 불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정서적 불안의 차이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정서적 불안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통제 유형은 지위지향적 언어통제, 인성지향적 언어통제,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도 지위지향적 언어통제, 인성지향적 언어통제,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의 순으로 나타나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통제 유형은 보편적 규범이나 보편적 지위를 가진 다른 아동과 관련짓는 언어통제 유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남아와 여아간의 어머니 언어통제 유형에서 차이가 인정된 부분은 명령적 언어통제 유형(F=5.43, p<.01)이었다. 즉, 어머니의 언어통제방식은 여아보다 남아에 대해서 명령적 통제를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아의 정서적 불안점수는 평균 2.62였고, 여아의 정서적 불안 점수는 평균 2.91로 여아가 유의하게(F=7.17, P<.01) 더 높은 수준의 정서적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정서적 불안과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정서적 불안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정서적 불안과의 관계는 어머니의 명령적 통제와 남아의 정서적 불안에서만 유의한 상관(r=.28, p<.01)을 보였으며, 여아의 경우는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즉, 어머니가 남아에 대해서 명령적인 통제를 할수록 남아의 정서적 불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정서적 불안과의 상관관계

정서적 불안	명령적 통제유형	지위적 통제유형	인성적 통제유형
남아의 정서불안	.28**	.14	.11
여아의 정서불안	.13	.11	.17

*p<.05 **p<.01

3. 아동의 정서적 불안에 대한 아동의 성별 및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의 설명력

아동의 성별 및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아동의 정서적 불안에 기여하는 정도를 알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정서적 불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별과 어머니의 언어통제

<표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통제, 아동의 정서적 불안에 대한 F-test

종속변인	Hypoth SS	Error SS	Hypoth MS	Error MS	평균(표준편차) 남 아	평균(표준편차) 여 아	F
언어통제유형							
명령적통제	2.58	80.26	2.58	.47	2.04(.77)	1.79(.62)	5.43**
지위적통제	.51	57.53	.51	.34	2.60(.62)	2.71(.55)	1.49
인성적통제	.64	79.27	.64	.46	2.49(.69)	2.62(.68)	1.38
정서적 불안	2.62	58.49	2.78	.32	2.62(.57)	2.91(.62)	7.17**

*p<.05 **p<.01

〈표 3〉 아동의 정서적 불안에 대한 성별 및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의 설명력

	B	β	r^2
성별	.28	.23*	.18
명령적 통제유형	.16	.19*	
지위적 통제유형	.11	.11	
인성적 통제유형	.25	.09	

* $p < .05$

유형의 설명 변량은 18%였다. 이러한 변인들 중에서 아동의 정서적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성별($\beta = .23$, $p < .05$)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중 명령적 통제유형($\beta = .09$, $p < .05$) 변인이었으며, 지위적 통제유형이나 인성적 통제유형은 아동의 정서적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정서적 불안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보다는 남아의 경우에 어머니는 명령적 통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에 대해 더 많은 체벌과 명령을 사용한다는 선행연구들(서선주, 1988; 조희진, 1982)과 일치된 결과이며,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언어적 공격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보고한 Straus(1991)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정현희, 1990), 이 때문에 아동 성별에 따라 다른 언어통제유형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어머니들이 남아에 대해 더 명령, 꾸중, 체벌등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Block, 1989)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으리라 사료된다.

아동의 정서적 불안을 보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아보다는 여아의 정서적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불안이 더 높게 나타난 김경희(1965)와 김정택(1978)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적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어릴 때부터 남자는 외향적이고 친취적이라도 교육받고 여자는 수동적이고 내향적으로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는 자신의 불만이나 정서를 밖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안으로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또 하나는 기질적 생물학적 특성을 들 수 있는데, 남아와 여아는 본질적으로 다른 생물학적 특성(예, 호르몬이나, MAO, AEP 수준)을 가지고 태어나므로(오미경, 1997), 같은 문화적 특성에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라도 남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솔직히 표현하는 성향을 지녔다면, 여아는 참고 견딘다거나 표출을 주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여아의 정서적 불안이 남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환경적인 것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타고나는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정서적 불안과의 관계에서, 남아의 경우에 명령적 통제유형과 정서적 불안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연구문제 1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명령적 통제는 어머니들이 가장 적게 사용하는 통제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적 통제가 아동의 정서적 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유일한 변인으로 나타난 이러한 결과로 보아 아동의 개성이나 인격, 기분을 무시한 명령적 통제는 아동의 정서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명령적 통제와 남아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 중 불안정성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인 정현희·최경순(1997)의 연구나 부모의 지시는 아동의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한다는 Ladd & Golter(198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명령적 통제는 자율성을 억압시킬 수 있고, 명령, 질책 등은 아동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을 설명하는 제 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한 김혜련(1994)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해석될 수 있다. 즉, 부모의 언어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적 행동, 퇴행행동 및 강박행동 모두에 매우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가장 큰 주효과로 작용하는 변인이 언어적 학대인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이 언어적 학대와 관련이 있다는 가정(연진영, 1992; Bousha & Twentyman, 1984; Ney, 1987)을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정서적 불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성별이 가장 큰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다음은 명령적 통제유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정서적 불안에서 남녀 아동간에 유의한 성차가 발견된 연구문제1의 결과와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정서적 불안간의 관계에서 남아에 대한 명령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정서적 불안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난 연구문제 2의 결과로 보아 아동의 성별은 아동의 정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유추할 수 있었으나, 이와 같이 성별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어머니의 명령적 통제유형은 아동의 정서적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아동의 정서적 불안에 기여하는 어머니의 명령적 언어통제유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아동의 정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해온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세분하여 보았을 때 특히 아동의 정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신체적 벌이나 위협, 언어적 처벌에 의한 어머니의 명령적 언어습관임이 명백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아동의 개성이나 의도와 같은 심리적 특성을 무시하고 잘한 일에 대해 칭찬하는데 인색하며, 잘못된 일에 대해 체벌이나 언어적 처벌을 주로 사용하는 태도

를 보일 때, 아동은 정서적으로 불안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명령적 언어통제유형이 아동의 정서적 불안을 야기시키는 요인이라는 사실은 불안을 설명하는 이론들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즉, 어머니가 명령적 통제를 할수록 어머니-아동관계는 거부감이 형성되어 유아에게 위협으로 느껴지고(Sullivan의 견해), 이러한 관계속에서 아동은 환경(부모)을 조절할 수 없다는 통제력상실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인지론적 견해). 또한 이러한 유아의 통제력상실과 무기력감은 자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 자아간에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인본주의 입장), 부모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와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간의 무의식적 갈등을 조절할 수 없는 데서(정신분석이론적 입장) 불안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무의식적 갈등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반복학습될 때 성격의 한 부분인 특성불안(Spielberger의 견해)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태도 자체는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의 기질적 측면에 영향을 받는다는 최근의 많은 연구결과들에 비추어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도 아동의 기질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아동의 정서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을 매개로해서 아동의 정서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규명될 필요성이 요구된다. 즉, 앞으로는 아동의 성차 또는 기질적 차이가 직접적으로 아동의 정서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 또는 기질적 차이가 매개변인으로서의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을 통해서 아동의 정서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강계순(1986). 사회적 책임감과 불안이 아동의

- 친사회적 행동동기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경희(1965). 한국 아동의 불안 형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김선미(1994).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이은(1996).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부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정택(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김혜련(1994).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도혜숙(1997).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친사회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박향숙(1989). 어머니의 언어통제 방식과 유아의 공격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서선주(1988). 부모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내외통제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연진영(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 11) 오미경(1997).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협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 윤상래(1965). 불안과 육아법에 관한 상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이경희(199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이선영(199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자기표출과의 관계.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이순재(199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이승희(199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 요인과 자아존중감 요인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정현희(199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8) 정현희·최경순(1997).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내외통제성,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 35권 5호, 163-175.
 - 19) 조희진(198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Adler, A.(1956).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Eds., H. L. Anbacher & R. R. Anshacher. New York: Basic book Inc.
 - 21) Belsky, J., Fish, M., & Esabella, R.(1991).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infant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ality: Family antecedents and attachment consequ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21-431.
 - 22) Bernstein, B.(1971). *Class, codes and controls (volume 1): Theoretical studies toward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Routledge and Degan Paul.
 - 23) Bousha, D., & Twentyman, C.(1984). Mother-child interactional style in abuse, neglect, and control groups: Naturalistic observations in the hom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106-114.
 - 24) Brown, G. W., & Harris, T(1978). *Social origins of depression: A study of psychiatric disorder in women*. New York: Free Press.
 - 25) Dumas, J. E., & Gibson, J. A.(1990). Behavioral correlates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conduct-disorder children: II. Systemic effects involving fathers and sibling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877-881.
 - 26) Dumas, J. E. & LaFreniere, P. J.(1993). Mother-child relationships as sources of support or stress: a comparison of competent, average, aggressive, and anxious dyads. *Child Development*, 64, 1732-1754.
 - 27) Dumas, J. E., & Wahler, R. G.(1983). Predictors

- of treatment outcome in parent training: Mother insularity and socioeconomic disadvantage. *Behavioral Assessment*, 5, 301-313.
- 28) Dunne, S.(1977). *Altruism as a function of locus of control orientation*. Honors thesis, Emory University.
- 29) Gumpertz, J. J.(1973).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London: Holt, Rinehart & Winston.
- 30) Hollos, M. & Cowan, P.A.(1973). Social isolation and cognitive development: logical operation and role taking abilities in three norwegian social settings. *Child Development*, 44, 630-641.
- 31) Ladd, G. W. & Golter, B. S.(1988). Parent's management of preschooler's peer relations: Is it relate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09-117.
- 32) LaFreniere, P. J., & Sroufe, L. A.(1985). Profiles of peer competence in the preschool: Interrelations between measures, influence of social ecology, and relation to attachment the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1, 56-69.
- 33) Lazarus, R. L., & Averill.(1972) Emotion and Cogni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anxiety. In C. D. Spielberger(Ed),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Vol. 2, New York: Academic Press, pp242-283.
- 34) May, R.(1950). *The meaning of anxiety*.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 35) Mowrer, O., H.(1950). *Learning theory and personality dynamic*. Ronald.
- 36) Ney, P. G.(1987). Does verbal abuse leave deeper scars: A study of children and parent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2, 371-378.
- 37) Parke, R., & Ladd, G. W.(1992).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Hillsdale, NJ: Erlbaum.
- 38) Petterson, G. R(1992). *Antisocial boys*. Eugene, OR: Castalia.
- 39) Sarason, I. G.(1972). Experimental approaches to test anxiety: attention uses of information, in C.O. Spielberger ed.,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Vol. 2, N.Y.: Academic Press Inc., 382-387
- 40) Spielberger, C. D.(1972). Anxiety as an emotional process, In C. D. Speilberger Ed.,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Vol. 1, No. 9: Academic Press.
- 41) Spielberger, C.D.(1977) *Anxiety: Theory and Reaearch in international encyclopidia of neurology*. Psychiatry, psycho analysis, and psychologiacl, n.p. nid.
- 42) Sroufe, L. A., & Rutter, M.(1984). The domain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Child Development*, 55, 17-29,1
- 43) Straus, M. A.(1991). Verbal aggression by parents and psychosocial problems of children. *A Child Abuse & Neglect*, 15, 223-238.
- 44) Sullivan, H. 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Y.: Norton & Co., Inc.
- 45) Thorlindsson, T.(1981). A quest for mind: A study of family interaction, roje taking ability and use of elaborated language, in an icelandic setting. *Joura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273-293.